

# 이렇게 들었다

## 위패반환

### 전범들과 함께 봉안 '치욕'

"어리석은 증생들은 법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 한량없는 악을 짓는다"

<잡아함맹귀경>

일본 우익들의 정신적 고향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한국인 위패 2만1181기가 모셔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징용돼 끌려간 한국인들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한국인 징용자들은 죽어서도 '전황을 위해 자발적으로 몸 바친 영령'으로 치부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영혼모독이요, 민족의 수치이다.

정부가 17일 "징용자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위패의 반환을 공식 요청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를 일본에 공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91년 일제 식민지 지배 당시 순진 한국인 징용자들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실이 알려진 뒤 10년만에 정부가 나선 것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언해 온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정부의 강경 반향조치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을 막기 위한 정치적 압박용이기 보다는 강제로 징병·징용 당해 미국에서 싸우다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유골과 의패를 가족 품으로 돌려주자는 인도주의적 고려가 본래의 목적이 돼야 한다. 일본 측이 야스쿠니 신사가 종교법인이라서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쟁 희생자인 한국인 위패를 전범자들과 함께 봉안한 모순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의 비도덕성을 공개하는 등의 작업과 함께 국제사회에 강제로 징용된 한국인의 문제를 공론화 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야스쿠니 신사에 위패가 있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관련 작업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가 불거진 1991년 이후 10년간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야 나섰지만 명확하게 위패반환 조치 등 한국인의 입장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희생자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며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에 대한 예우일 것이다.

일본정부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사과와 위패를 가족들에게 반환하는 참회하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이르길 '먼저 악을 저질렀다 해도 뒤에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나서는 부끄러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이다'고 말씀했다.

김원우 기자

# 여성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물자 세상보기

여성의 삶과 지위의 향상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사회문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모성보호법'이 제정됐고, 그 이전에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999)과 '남녀고용평등법' (1997)이 개정됐다. 또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여성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유엔도 여성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여성부가 설치돼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여성의 삶의 지위 향상을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

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인간개발계획(UNDP)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29위, 인간개발지수는 31위이고, 여성권한지수는 61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그리고 남녀의 소득차이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한 것이다. 여성들의 보다 많은 사회진출이 필요하고, 정책결정직으로의 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 제4차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각국 의 정부와 여성 활동가들에게 '각종 정

### 여성권한 척도 '세계 61위'

###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 정치·경제 참여하도록

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못하고 있다. 또 유엔은 여성발전 전략으로서 '국가발전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젠더(gender)'를 제시하고 있다. 즉, 그동안 여성 문제를 특수한 문제로 상정하고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웠던 전략(WID: Women in Development)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략(GAD: Gender and Development)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전환은 여성정책이 국가발전정책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은 행위주이며 여성은 수혜자로 취급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GAD 전략은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성 주류화(Mainstreaming)'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로 남성들에 의하여 주도되어왔던 정책을 의사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와 같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각종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



김재민

한국여성개발원 기획조정실장

는 것이며, 이는

어떤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남녀평등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째, 여성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교육을 위해 영유아 보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gender-sensitive)을 삽입하여 기획, 시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실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어떤 영역에서나 마찬가지이다.

# 독자의 소리

### 불교문화 배우고 느낄

### 번듯한 회관없는 서울

○ 서울 어디에도 번듯한 불교문화회관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이웃 종교들은 수많은 회관 건물과 여러 개의 종합 병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는 이제 겨우 일산에 동국대가 종합병원 하나 세워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비참한 현실인데, 어떻게 막대한 돈을 들여 세계 최대 불상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해인사에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게다가 스님들의 폭력문제까지 나와 불자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 불교가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가.

불교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불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저 큰 절, 큰 불상만 좋아해 스님들로 하여금 대형불사를 능사로 여기게 한 죄를 참회하라. 스님들만 탓하는 죄 무엇보다 큰 죄임을 참회해야 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 김대원>

### 해인사 대불조성 재고

### 중생 아픔아는 승가답다

○ 해인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 청동 불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면 대불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독자여러분의 글·사진·인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86 ·천리안: aum ·이메일: 34713

지금 우리 사회는 긴 가뭄에 이어 홍수가 나고, 노동자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노숙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중생의 아픔을 같이하는 것이 승가의 올바른 도리라면 지금 대불을 짓는다는 것은 부처님 뜻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해인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생들의 것이다. 해인사의 진정한 주인은 스님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다. 누구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다행히 해인사가 대불 조성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 반갑다. 부처와 중생이 한자리로 가는, 한 마음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 김정자>

### 특기 살리는 자원봉사

### 교계 연결장치 아쉽다

○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불자다. 얼마전 어머니가 자원봉사를 다니시는 복지관을 따라간 적이 있다. 많은 분들이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배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가끔적인 전공 분야를 살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에 복지관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곳이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복지관에서는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어머니와 어머니

도반들의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여 결심했는데, 정작 봉사할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자원봉사 희망자들을 적재적소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하루 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 이상희>

### 학교서 특정종교 교육

### 엄중 감시와 처벌 절실

○ 며칠 전 교계 신문에서 종교편향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한 고발이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불교소 처분된 데 이어 이에 대한 항고마저 다시 기각돼 그 지역 불교계가 재항고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 헌법 제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으며,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해놓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달리 특정 종교교육을 하였다면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강요하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특정종교를 주입시키는 것은 역시 심각한 종교편향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불자들이 엄중히 감시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서울 송파구 · 양환우>

### 기고

### 산문을 들여서면 벌써 냄새

부터가 다르다. 향긋한 풀냄새, 싱그러운 나무냄새, 가슴 속이 썩어간다. 복(伏)중인 지금 그래서 우리는 푸르른 산이나 초록빛 바다로 나아가 안긴다. 생명의 종전, 말 없는 교신이다. 자연은 말 없는 가운데 우리를 보듬어 준다.

여름의 한마당, 나는 지금 산사에 있다. 금세 쓸린 듯 빗자국이 남아있는 깨끗한 마당을 지나 후원으로 돌아오니 거기 '묵언(默言)'이란 팻말과 눈이 마주친다. 발소리는 물론 숲소리조차 가다

들게 된다. 청량한 한줄기 바람이 가슴 위로 지나간다. 산문에 들어선 기쁨을 느끼게 해 준다. '묵언'이란 글자가 사람을 그윽하게 만든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다. 돌 틈새로 낮게 피어난 작은 꽃들이 눈길을 끈다. 생명이 한희롭다. '아, 거기 꽃이 있었군.' 소리 없이 피고 지는 자연. '회연자연(偁言自然)'을 생각하고 있는데 왠지 왠지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다가온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라앉지 않는다. 여자 셋이 모이면 짐짓가 깨진다더니... 어찌지? 여기는 지금 '묵언'중인데, 나는 속으로 조바심이 났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일장기간 동안 묵언을 실천해보겠다고 버티던 일이 떠올랐다. 안을 들여다보려는 수행의지도 아니요, 그저 소리 없는 고요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회연 자연' 소리 없는 것만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말 없는 가르침. 자연은 그냥 숨이나 쉬다 가라고 한다. 가슴 속이 썩어 하도록, 그리고 텅 비어있으라 한다. 밭도 멀어내고 욕심도 멀어내고 결국에는 우리의 과실까지 멀어내게 된다. 묵언은 우리를 편안히 한다. 진정한 자유, 그것은 침묵의 세계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말 수도 줄이고, 이제 욕망의 심지도 낮추고 또 낮추자. 인생은 조금 줄여서 사는 것이 곧 조금 초탈해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거질 대로 우거진 자연의 푸르름 속에, 그냥 심신을 한 번 푹 담구었다가 가라 한다.

### 묵언은

### 사람을

### 그윽하게



맹란자

수필가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운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양집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출신식 (2개월 50만원), 송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수중구고 (2개월 150만원), 유허간장 (2개월 50만원), 유허된장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6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기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 (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소가 입증된 「세시미늄」 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늄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식품으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병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제조 의료 총판 법인 호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함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호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출신식(松仙食)」, 「송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